“할아버지 홍범도 장군 내 평생 자부심 독립군 이야기 계속 교과서 실렸으면”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 김알라씨

독립운동가 후손 14명과 함께 생애 첫 조국 방문

담양 대나무 박람회 등 찾아…“기억해준 조국에 감사”

“잊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항일 독립군 이야기가 교과서에 계속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73)씨는 12일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신 “할아버지를 기억해주고 환대해준 조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일한 후손으로 알려진 김씨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의 초청으로 전날 러시아에서 건너와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규연 장군의 증손녀 박안나(20)씨와 독립운동가 이인섭 선생의 딸 슬로보드치코바 스베틀라나(67)와 외손자 세르게이(35) 등 15명의 고려인 방문단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통역을 거쳐야만 말이 통했지만, 할아버지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김씨는 “내가 한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 말로는 ‘산처럼 정말 큰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생 집단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일본놈을 크게 쳐부순 홍범도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왔다”고 회고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홍범도 장군은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그 활약상이 다뤄지고 있지만, 그의 유일한 후손으로 알려진 김씨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껏 정부로부터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연금 대상자와 특별귀화 대상자에도 누락된 것이다.

김씨 등 고려인 15명을 초청한 고려인돕기 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3년여 전쯤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과 한국 정부 쪽에서 연금 지급 등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홍범도 장군 외손녀인 김할머니는 러시아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월 20~30만원)과 남편 연금으로 두 딸과 살고 있으나 형편이 넉넉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알라씨

러시아에서 과거 김씨를 만난 인연으로 이날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및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환영행사’에 참석한 광주제일고 역사교사 신봉수씨는 “2008년과 2013년 김알라 할머니를 두 차례 만났다. 당시 할머니와 함께 나온 따님이 5년의 간격을 둔 만남에서 무척 낡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불합리한 예우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독립운동사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누락될 것으로 보여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 등 고려인 방문단은 고려인돕기 운동본부와 고려인문화농업교류협력회 초청으로 광복 70년을 맞아 5박6일 일정으로 지난 11일 고국을 찾았다. 고국방문 첫 일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한 방문단은 이날 낮 고려인마을을 방문한 뒤 담양대나무박람회장을 둘러봤다. 방문단은 13일 천안독립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찾은 뒤 서울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국에 오니 기뻐요”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1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환영 다과회에 참석, 선조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36	달뜸	06:23
해짐	18:01	달짐	18:16

건강 관리 유의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1/22	보 성	맑음	7/22
목 포	맑음	13/21	순 천	맑음	10/23
여 수	맑음	13/22	영 광	맑음	10/22
나 주	맑음	8/23	진 도	맑음	11/22
완 도	맑음	12/22	전 주	맑음	10/22
구 례	맑음	7/23	군 산	맑음	10/21
강 진	맑음	9/23	남 원	맑음	6/21
해 남	맑음	10/22	흑산도	맑음	15/20
장 성	맑음	8/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15	07:30
	14:37	19:49
여수	09:13	02:49
	21:19	15:13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보통
산불	낮음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12/23	11/23	11/23	11/24	11/24	11/24	11/24

한빛원전 사상 최대 방사능 방재훈련

오늘 전남도 등 124곳 참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원안위·국방부 등 18개 중앙부처, 전남도 등 8개 지자체, 군·경·소방·교육청·적십자사 등 124개 기관, 145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훈련에서는 지진, 냉각재 상실 등 복합재난으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상황을 가상해 주민 소개, 방사선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탐사, 냉각계통 복구 등 원전사고 수습 활동이 진행된다.

중앙에는 방사능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1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현장에서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 방사선 비상대응 조직이 운영된다.

전남·전북 등 한빛 원전 주변 8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주민 보호를 위해 주민 소개(약 2300명), 도로 긴급복구, 이재민 지원센터 운영, 교통 통제,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인들에 만병통치약 사기 40대 구속

흑삼 등 2억7천만원어치 판매

순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흑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2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47)씨를 구속하고 K(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순천시내에 ‘W플라자’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 132명을 상대로 흑삼 132통 총 2억856만원 상당을 파는 등 순천과 청주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2억7100만원 어치의 흑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홍삼회사에서 시중에 유통하는 흑홍삼청 1병과 홍삼진액 1병 등 흑삼제품 1통을 63만원에 구입한 뒤 약 3배 가까이 비싼 158만원에 팔아 1통당 95만원씩 모두 1억6340만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화재·산악사고…위급할 때 119 특수구조단 부르세요” 광주 공식 출범

산악·수난사고, 대형 재난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된 광주 119 특수구조단이 12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 119 특수구조단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특수단은 내년 하반기 광주 첨단지구에 새 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이곳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다.

특수단은 대형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구조 활동, 첨단장비 활용 인명탐색, 산악사고 구조활동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주도적으로 구조·지원 활동을 펼친다. 특수단은 항공구조구급대, 산악구조팀, 특수구조팀, 현장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43명이다.

초대 단장에는 이천택(지방소방정) 전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담당이 취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